

부재의
존재
—
달걀
반쪽
도둑

The
Presence
of
Absence
—
The
Half
Of
An
Egg
Thief

1
Document
By
Text

K

Chris
Ro
크리스
로

부재의 존재—
달걀 반쪽 도둑

2

결혼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22년 된 것 같네요. 아니면 23년? 스물두 해가 스물세 해로 넘어가는 시점일 수도 있겠네요. 스물두 해이든, 스물세 해이든,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든, 어쨌든 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 이 정도의 세월은 때때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초점이 바뀌기도 하죠. 중심이나 강조점이 바뀝니다. 이렇게 오랜 관계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세세한 일들은 점점 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사소한 디테일들. 스물두 번째 해엔, 반대로, 실제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아마도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더 커지고, 말 그대로 방대해지죠. 삶이 우선시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크고 부피가 큰 물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 밤에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요. 빙산. 고래. 코끼리. 어쩌면 큰 구름일지도 모르죠. 모두 천천히 움직입니다. 느리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근접성. 친밀함.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누군가와 이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 여러 상황이 바뀝니다. 많은 경우, 22년을 함께하면 결국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능률적이게 되죠.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것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일들도 줄여냅니다. 모든 것을 핵심으로, 순수한 상태로 분리시킵니다. 이러한 축소, 다듬는 행위들의 일부는 때때로 인간의 실재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인간을요? 네.

사라지게 만들죠. 증발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때로는, 이상하게도, 두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결합하고, 합쳐지죠.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특정 시점이 지나면, 서로 다른 두 인간에게 요구되는 요건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관계의 절차적 측면들은 왔다가 사라지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특정 주제들에 있어선 더 이상 토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의가 필수적이지 않죠. 22년의 결혼 생활에선, 때때로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이해가 생겨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형성된 이해. 또 하나의 근접성. 또 하나의 친밀함. 이 두 가지 개념은 때때로 텍스트를 뛰어넘는 이해를 형성합니다. 단어들을 넘어섭니다. 더 이상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두 언어에, 서면 텍스트에, 아니 어떤 텍스트에도 의존하지 않죠. 이러한 이해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깝고, 친밀하고, 효율적이죠.

많은 한국 국수 요리에는 정확하게 ‘달걀 반쪽’이 들어가는데, 이 달걀 반쪽은 국수를 먹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반쪽은 음식의 메인 요소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요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달걀이 없는 국수 한 그릇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요.

기묘하죠. 많은 고객이 달걀이 없으면 불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일이죠. 옛날에는 이 달걀 반쪽이 어떤 기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국수를 먹기 직전에 먹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의 일부로요. 하지만 최근에는, 달걀의 반쪽은 자주, 하나의 마무리의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구두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장을 마무리하는 마침표. 식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무언가. 맨 마지막에 먹을 음식.

반. 달걀 반쪽. 왜 달걀의 절반일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역사나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시각적인 결정이라는 말이 종종 있습니다. 통으로 된 달걀과 달리, 노란색의 노출된 층이 있는 이 달걀의 절반은, 음, 그냥 멋져 보입니다. 달걀을 자를 때 대부분 긴 쪽을 자르기 때문에, 반으로 자르면 노른자와 함께 긴 타원형 모양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끝으로 갈수록 비대칭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나쁘지 않죠. 확실히 보기에나 나쁘지 않은 데다, 네, 아마도 통으로 된 달걀 자체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걀 반쪽은 수학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이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커플이나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수 한 그릇에 완탕/완자나 녹두전을 곁들여 먹는다면, 훨씬 더 좋은 저녁 데이트가 될 거예요. 음식에 약간의 다양성을 추가하는 거죠. 하지만 국수를 나눠 먹는데 국수에 달걀 반쪽이 들어 있다면, 누가 이 반쪽을 먹게 될까요? 커플 또는 두 사람이 하나의 국수를 나눠 먹었는데, 이 마지막 달걀은 누가 차지하게 되죠? 진정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달걀 한 개가 아닌 달걀 반쪽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정확히 분할하기엔 모두에게 양이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찢어진 달걀을 다시 찢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저를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죠.

달걀 반 개. 한 접시를 공유하는 두 사람. 하나의 음식. 정말로, 누가 이 달걀 반 쪽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간결한 대화를 통해 누가 이 달걀 반쪽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달걀의 반쪽을 먹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논리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반으로 잘린 달걀은 일반적으로 한두 입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누가 그러한 달걀을 먹을지 대한 논쟁은 오래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몇 초 만에, 한두 번의 손짓, 고개의 끄덕임, 수저로 가리키는 동작만으로도 달걀의 반쪽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달걀에 대한 논리의 일부분은 아마도 유교적 뿌리 또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달걀을 먹어야겠죠. 아니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달걀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달걀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남자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배고픈 사람이 이 반쪽 달걀을 가져가야 할 수도 있죠. 또는 더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 아니면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 중 혹은 이 모든 로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면, 서로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람이 달걀 반쪽을 먹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에게도, 그들의 관계 초기에는 이런 짧은 토론들이 존재했습니다. 좋은 래포를 유지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심지어 달걀 반쪽을 누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작고 유쾌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논쟁을 일종의 친절한 제스처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보살핌, 지지, 사랑의 제스처 말입니다. “오, 당신은 오늘 정말 긴 하루를 보냈으니, 이 달걀 반쪽을 먹어주세요”. “당신이 이 달걀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제발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이렇게 초반 대화들에서는, 남편은 자주, 천천히, 결국 시인하고 달걀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더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긴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달걀을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슬프지만, 이 달걀 섭취에 남성/여성에 대한 인식 또한 존재했었을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인식이요. 또요. 고대부터 사회적으로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남자였습니다. 사냥을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였죠. 또는 채집을 위해서요. 아니면 남성의 위가 더 커서 남성이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달걀, 이 반쪽 달걀은 남자에게 가는 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사고와 관계의 진화가 결합되어, 그래서 이 커플에게는 반쪽 달걀/국수라는 역학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곧 남편이 달걀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달걀 반쪽을 누가 먹을 것인지에 대해 예의 바른 농담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그냥 달걀 반쪽을 먹었습니다. 질문은 없었죠. 토론도, 제스처도요.

그리고 여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그게 그녀만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자라온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 이것은 그녀의 성격과도 비슷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녀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돌보고 신경 쓰는 일.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상황을 까다롭게 만드는데, 음, 복잡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정중한 교환과 공손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가감 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었죠. 그녀는 사실 이 달걀 반쪽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항상 그랬죠. 그녀는 모든 종류의 달걀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에게 이 달걀 반쪽을 먹는 것은 이 요리를 완성하는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의 소중한 일부였죠.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소중한 요소이자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적인 아내, 다정한 아내로서, 그녀는 더 이상 이 달걀 반쪽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내였습니다. 한 가정의 지지자이자, 깊이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 그래서 이 달걀에 대한 사랑은 책임감 때문에 왠지 모르게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요.

이 모든 기간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니요. 이 사실이 반드시 비밀 그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녀가 달걀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달걀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특정한 달걀의 반쪽, 그리고 그녀가 이 달걀 반쪽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결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이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슬픈 사실은, 수 년이 지나고,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2년. 그런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덜 중요해지지 않나요? 아니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야 하죠. 그래요. 달걀 반쪽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장식이 아닌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장식적이고 그저 시각적인 가치를 위해 추가된 것. 그리고 맞아요, 사실, 수년 동안 그것은 아마도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미세한 것이 ‘시간’을 만나면, 더 이상 작은 것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성장하죠. 정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장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니 소홀히 지나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달걀 반쪽도 방치된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치는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그가 몰랐다는 점에서 일방적입니다. 이 달걀 반쪽, 그리고 이 달걀 반쪽에 대한 생각이 가끔씩 그녀와만 함께했을 거란 사실 때문에 일방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때때로 이 달걀 반쪽을 급히 집어 들고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어치웠죠. 그리고 이 일은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했죠.

처음에 그 생각은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죠. 너무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드는 생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 남자는 정말 단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전혀? 그가 음식을 먹는 방식. 이것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예전과는 달랐죠. 그의 식사 매너는 처음 사귀었을 때의 정중하고 조용하고 식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밥을 먹는 것은 이제 그저 필수적인 일일뿐입니다. 말하는 위장을 침묵시키기 위한 수단. 그는 빨리 먹었습니다. 시끄럽게. 턱을 움직이는 동작에서 가끔 소리도 났습니다. 이를 씹는 소리. 큰 소리로 후루룩거리는 소리. 야만적이진 않았죠. 하지만 야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에게 관찮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하지만 그가 달걀 반쪽을 들이 마셨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들이마셨을때. 이 생각은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사소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진다는 오래된 논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속담과 관용구들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오래 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죠. 그렇죠?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오래된 속담들은 때때로 그 반대¹²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매우요. 시간은 특정 상처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정 상처가 더 커지도록 허용합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속담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입니다. 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달걀 반쪽. 그의 빠르고 반 야만적인 섭취.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했던, 그녀의 달걀 사랑에 대한 무지 혹은 그의 양면성. 이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그녀와 함께하다, 최근에는 천천히 그녀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녀의 내면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녀를 잡아먹었죠. 느리고, 천천하게. 사람들이 말하기로 아프리카에서 바오밥 나무는 20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20년이라니. 그런데 여기에서도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죠. 20년 과정이었습니다.

20년. 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달걀의 절반은 그녀 안에 일종의 거주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간에 있는 달걀의 반쪽은 항상 그녀의 남편에 의해 소화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개념. 이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22년 동안 희생해 온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이 달걀의 반쪽이 그녀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거주자.

무단 입주자. 이 달걀 반쪽은 가구를 설치하고,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이 달걀
반쪽은 스스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은
무슨, 떠날 계획이 없었죠. 달걀은 아예 그곳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장식을 추가하고. 가끔은
요리를 하고. 가끔 차를 마시고, 때로는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스스로 국수 한 그릇과
달걀 반 개를 먹기도 했죠.

23년째. 아니면 24년째였나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네요.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매우 오래 지나버린
시간. 존재와 부재 모두에 충분한 시간. 존재와 부재가
동등하게 존재하기에 충분한 시간. 정말로 충분한
시간이었죠. 23년째가 되던 해에,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떠났고, 그녀는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때가 됐어요.
떠날 시간이 됐고, 실제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녀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달걀은. 그녀를
먹어치웠습니다. 달걀. 디테일. 세부적인 사항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중 하나. 사소한 것들 중
하나. 하지만,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들은 더 이상 세부사항들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커버렸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시간. 가까움.
친밀함.
달걀 반쪽.